
第7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8月17日(木) 年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公報官室業務報告의件
 2. 文化觀光局業務報告의件
 3. 世宗文化會館業務報告의件
 4. 公務員教育院業務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3面

1. 公報官室業務報告의件 ... 3面
 2. 文化觀光局業務報告의件 ... 27面
 3. 世宗文化會館業務報告의件 ... 48面
 4. 公務員教育院業務報告의件 ... 54面
-

(10時 18分 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催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會議 進行에 앞서 우리 委員會 所屬 委員님의 變更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의 金天柱 委員께서 水

資源管理委員會로 가시고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劉大運 委員님께서 우리 委員會로 오셨습니다. 우리 委員會로 오신 劉大運 委員님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人事紹介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劉委員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劉大運 委員; 저는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한달 동안 業務報告와 함께 議政活動을 하다가 어제 本會議에서 文化教育委員會에 가라는 議決과 함께 오늘 尊敬하는 委員長님 이하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앞으로 서울시 文化觀光局이라든가 公報官室 또 서울시 教育廳 여기에 상당한 問題點과 監視 活動을 게을리하지 않겠고 최선을 다해서 融合과 和合 그리고 發展的 代案을 제시하는 文化教育委 委員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감사합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千百萬 市民의 代辯者로서 그 所任을 다하시는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第4代 서울시議會가 出帆하여 두 번째로 맞이하는 臨時會로서 文化教育委員會所管 部署로부터 業務報告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委員님들이 研究한 情報 및 資料와 市民들과 직접 呼吸하며 피부로부터 얻은 問題點들을 깊이 있게 質疑하여 執行部에 대한 牽制의 機能을 충실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執行部 關係公務員께서도 委員님들이 質疑하시는 마디마디가 千百萬 市民의 바람인 것을 충심으로 인지하시어 眞摯하고도 誠實하게 答辯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같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委員님들, 오늘 이 會議가 잘 進行되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報告事項

○委員長 安順德;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專門委員室 關係公務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室 康永泰; 專門委員室 康永泰입니다. 課長으로부터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하도록 回附된 案件 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1995年 7月 25日 서울特別市 教育監으로부터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學生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女學生生活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科學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각각 提出되어 同年 7月 27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번 會期 中 우리 委員會의 議事日程은 配付하여 드린 議事日程表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委員會 報告事項을 말씀드렸습니다.

1. 公報官室業務報告의件

(10時 23分)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1項 公報官室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公報官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大龍; 公報官을 맡고 있는 趙大龍입니다.

여러모로 能力이나 또 經驗面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公報業務를 해 나가는 데 委員님들의 指導鞭撻을 받아서 서울시를 市民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指導鞭撻 부탁드립니다.

第4代 市議會 構成 後 오늘 첫 번째로 열리는 文化敎育委員會에서 尊敬하는 安順德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우리 公報官室所管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公報官室은 全職員이 일체가 되어 民選時代 또 自治時代가 要求하는 公開行政, 또 市民의 參與行政을 구현하는 데 있어 先導的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傾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의 아낌없는 忠告와 애정어린 指導鞭撻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所管 業務報告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公報官室 所屬 課長들을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公報1擔當官 姜鍾弼, 公報2擔當官 金忠民, 弘報擔當官 鄭美洪)

그러면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서 業務報告를 올리겠습니다.

.....
(報告)

공보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公報官室에서 하고 있는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問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다.

○委員長 安順德; 지금 公報官께서 報告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質疑 答辯 순서인데 案件의 性質上 원활한 議事進行을 위하여 一括質疑 後 一括 答辯을 듣도록 하고 補充質疑는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들의 異議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劉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원래 議會는 討論의 場이고, 특히 常任委員會는 융통성 있는 委員會로 運營이 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따라서 一括質疑 一括答辯, 어떻게 보면 상당히 發展的인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本 質疑가 끝나서 答辯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補充質疑가 따라가는 것인데 補充質疑는 물론 一問一答으로 자연스럽게 進行해 나가는데, 다만 本 質疑에서 중간에 答辯의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委員長님께서 융통성 있게 對處를 하시면 보다 더 委員會가 활발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運營되리라 判斷하기 때문에 質疑 與否에 관한, 答辯 與否에 관한 부분을 委員會의 議決로 사전에 決議하고 委員會를 進行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進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바입니다.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順德; 劉大運 委員님으로부터 質疑 答辯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李載震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劉大運委員이 會議 進行方法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日程으로 봐서 一問一答이 어떤 면으로서는 상당히 效率的이고 좋은 것 같지만 즉석에서의 一問一答이 우리가 진실한 答辯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會議의 원만한 運營을 위해서는 一括質問 一括答辯하는 것이 會議 運營上 效率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의견을 提示를 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지금 李委員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원활한 會議 進行을 위해서 慣例대로 一括質疑 一括答辯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급하시면 조금 進行을 통해서 補充質疑를 하시고 이런 方法으로 慣例대로 進行을 하는 것이 어떤지 贊同해 주시면 그렇게 進行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一括質疑 一括答辯으로 하시되 우리 公報官님께서서는 성실한 資料와 委員님들의 충분한 質疑에 대해서 충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公報官室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鐘化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林鐘化 委員; 麻浦4選舉區 市議員 林鐘化입니다.

公報官으로부터 主要業務報告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民選時代로부터 시작해서 趙淳 서울市長이 들어오고, 또 서울市議會에 民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이곳에는 文化教育이 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해서 오늘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나. 民選時代가 됐으므로 市民의 輿論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뭔가

國民에게 희망을 주고, 서울시 行政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過去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行政의 시너처럼, 또 政府의 앞잡이처럼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民選時代에 따라서 서울시 行政을 바로잡고, 또 건전한 市政을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資料와, 또 公開적이고 合理的인 代案을 提示해 주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서울시청뉴스에 보니까 豫算이 6億 3,000萬 원, 市報發行에 11億 6,000萬원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豫算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交通放送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聽取率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청뉴스라든지 市報發行에 대해서는 豫算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國民이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좀 是正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意見이고, 또 補助金 支給에 대해서 在鄉軍人會하고 自由總聯盟에 補助金이 나가는데 在鄉軍人會는 約 1,000萬원이니까 豫算이 별 것 아닌데 自由總聯盟에 보니까 5,400萬원이 支給된다고 하는데 전의 예로 보면 이러한 團體들이 有名無實해 가지고 選舉때 政府 與黨의 편을 든다든가, 與圈에 協力을 많이 해 가지고 國民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참 보면 저런 補助金은 없애 버려야 된다, 왜 서울시에서 저런 浪費를 하느냐, 이런 불쾌감 있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參酌을 해서 과연 그 돈을 支給해 가지고 그 團體가 건전히 育成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러한 豫算을 없애 가지고 妥當性 있는 制度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또 委員님 質疑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道峰 第1選舉區 梁東錡 委員입니다.

公報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市議會가 지난번 第3代때를 보면 서울市民들이 서울市議會가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나, 우리 市議會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도 弘報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林鐘化 委員께서指摘한 대로 서울시청뉴스나 市報發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市民들한테 얼마만큼 弘報가 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問題를指摘하고 싶고, 이번에 우리 4代 서울市議會만큼은 公報官께서 좀 우리 市議會 常任委員別로라도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市民들에게 弘報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再論하지만 지난 3代때 서울市 議員들이 놀고 먹는 그러한 市議員으로 전부다 市民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弘報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公報官께서 主要業務報告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業務報告를 받을 때마다 하나의 口號에 그치는 그러한 業務報告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現實적으로 정말 口號에 그치지 않는 실천할 수 있는 行動을 보여주는 그러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公報室에서는 各 區의 難視聽地域 이러한 것을

과약해서 어떻게 하면 그 難視聽을 解決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各 區 公報室을 통해서 報告를 받아서 우리 서울市民이 정말로 TV 視聽하는데 서울에서 難視聽地域이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特定新聞 購讀問題입니다.

경향이나 서울, 어느 신문을 꼭 나열한다는 것보다도 特定新聞을 統長이나, 또 어떤 特定人들에게 購讀을 無料로 시켜주고 各 區에서 豫算을 執行하고, 또한 市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制度를 이제 정말 民選市長이 들어오고, 또한 民選 區廳長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冠岳區에서는 그 豫算을 削減을 시켰다고 그래요. 사실 公報室에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울시청뉴스에 있어서 정말 市長의 動靜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市長이 어디 行事に 參席했느니, 또는 어떻게 했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제가 듣기로는 趙淳 市長 赴任 이래로 地下鐵을 活用해서 出退勤을 하고, 또한 業務用 外에는 自家用을 쓰지 않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副市長들도 옛날에는 家庭用 乘用車를 支給을 했는데 이제 전부 返納을 해서 家庭用 乘用車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副市長도 역시 地下鐵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出退勤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市民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뉴스가 나오지를 않아. 사실상 一般 弘報物에, 또한 뉴스매체를 통해서도 活用될 수 있도록 公報室에서 힘을 쓰는 것은 물론이지만, 서울시청뉴스에도 그 얘기가 한 줄도 나오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民選市長이 市長에 就任하더니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市長이 식판을 들고 비서가 갖다 주지 않는, 자기가 손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與件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서울市民이 한 사람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한 動靜이랄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報告할 때는 우리 市議員의 動靜을 잘 알리고, 또한 市議員이 무엇을 하는가를 理解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오늘만 지나면 그저 속수무책, 또한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 줄도 읽어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여지껏 公報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公報官님이나 또한 課長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市長, 또한 市の 動靜이랄지 우리 市議員들의 動靜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公報室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地下鐵을 저도 많이 利用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데, 地下鐵에 우리 廣告만 할 것이 아니라 地下鐵이 시원하고, 또 쾌적하게 잘 活用할 수 있으니 이런 大衆交通을 利用하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줘야 할 義務가 있다 이거예요, 公報室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地下鐵에 정말 시원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計劃을 해서 모든 市民들이 地下鐵을 利用함으로 해서 赤字도 메워지고, 또한 정말 우리 서울市の 交通難도 解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林鐘化 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시다만 서울特別市在鄉軍人會에 補助를 1,000萬원이 아니라 100萬원

한다는 것도 이것은 矛盾입니다.

왜냐, 在鄉軍人會는 우리나라의 利權이 좀 높은 것은 다 獨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利權 많은 團體에 우리가 단돈 100萬원이라도 支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今年에는 이 補助團體에 전혀 補助金을, 96年 豫算에는 上程하지 말 것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在鄉軍人會도 안 주어도 되고, 自由總聯盟에도 정말 理念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돈 5,400萬원 주어 가지고 運營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運營이 안 된다고 하면 없어져야 합니다, 이 團體가. 實質的으로 별 意味 없는 團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中央政府의 하나의 시녀에 불과한 이러한 團體지 어떤 우리 國民에 필요한 團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엔韓國參戰國協會는 이 정도는 支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는 좀 支援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支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우선 公報官室의 公報官 이하 各 課長님들을 보니까 앞으로 서울市の 弘報는 舊態에서 벗어나 확실한 서울市 弘報로 갈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事項만 質疑하겠습니다.

官選時代에는 基礎團體의 서울市 公報官室이 어떠한 指稱과 指揮監督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民選時代에는 그 모습이 어떤

形態로 바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答辯을 準備해 주시고, 市廳에 가보면 綜合發刊室이라고 있는데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이 機構가 民間機構인 것도 같고, 또는 市廳傘下의 機關인 것도 같은데 분명한 것은 民間團體인데, 一面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히 市政弘報를 計劃해서 인쇄를 해서 나가려면 直轄 民間部署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理解를 하는데 相當期間 동안 이 部分을 어떻게 管理해 오고 있고, 그 業體에 대해서 어떤 特惠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準備해 주시고, 지금 韓國自由總聯盟서울市支會 5,440萬원에 대한 質疑를 몇분 同僚委員님들께서 해 주셨습시다만 本委員는 다른 각도에서 5,440萬원에 대해서 上半期 中에 무려 4,088萬원이 支出이 됐습니다.

이것은 分期別로 볼 때도 本委員은 理解를 할 수 없고, 남아 있는 期間과 約 1,400萬원이 채 되지 않는 이 돈을 남아 있는 期間에 어떤 方法으로 支給할 것인지, 또 既 支給된 4,088萬원에 대한 支給은 몇월에 집중 支援이 됐는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刊行物審議委員會가 있습니다만 이 委員會 名單은 구체적으로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職責을 本委員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書面으로 答變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印刷業體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보면 豫算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各 部署에서 揭載 依賴하는 內容을 類型別로 編輯 後 單價 契約된 印刷業體에 印刷 依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서울市 傘下는 물론이고 政府 他 部處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會計法上이라고 그러나요, 年間 契

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事前에 契約者를 內定해 놓고 印刷物이 나올 때마다 그 業體로 계속 미는 方法이 과연 이 時代에 맞는 運營의 方法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李載震 委員께서도 몇 가지 사항을 質疑했습니다만, 그 중 特定新聞에 관해서 本委員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特定新聞이라는 것은, 서울新聞이라는 것은 政府의 弘報紙로 이 弘報紙를 過去에 官選 서울市長의 主導下에 서울시, 당시에는 22個 基礎團體입니다만 지금은 25個 基礎團體입니다. 人口에 따라 좀 差等은 있습니다만 年間 平均 4億 5,000萬원을 基礎團體에서 所要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公報官의 지휘나 통솔이나 이런 영향권이 아니라고 判斷되고 基礎團體에 의해서 알아서 스스로 削減을 해도 上部의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特定新聞에 관해서는 그런 是非가 줄어들 것으로 判斷을 합니다.

따라서 市長 弘報에 대해서 정확하게 公報官室 所管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所管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그리고 所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弘報 차원에서 發展的 代案과 民選市長의 格에 맞는 그런 弘報가 되어야 된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弘報擔當官께서 귀담아 들었다가 代案을 만들어서 答辯을 직접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趙淳 서울市長이 靑瓦臺를 간다거나 또는 國務會議에 참석을 한다거나 할 때는 言論媒體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民選 市長이 靑瓦臺에 가서 특별한 接見室을 사용해야 되는 前提條件을 事前에 儀典 쪽에서 협의가 되어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평상시에 長官한테 訓令이나 하는 그런 場所에 앉도록 해 가지고 서울市民에 보여주는 그 모습, 改善되어야 된다.

두 번째, 國務會議에 參席을 했을 때 서울市長이 國務會議에 가면 末席입니다. 그런데 많은 4,000萬 우리나라 國民들은 民選 市長, 특히 서울特別市長 같은 경우에는 第2의 大統領이다 이렇게 稱頌하고 있습니다. 이것 否認할 사람 어디 있어요? 末席에 앉아야 됩니까? 國務會議에 參席을 뭐하러 해요, 그런 條件에서. 만일에 民自黨이 서울市長을 當選시켜 놓았다고 예를 든다면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事前에 儀典 협의를 충분히 해서 民選 서울市長의 格에 맞지 않는 그런 대접을 한다면 參席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서울市長이 國務會議에 參席해서 國家發展이나 서울市發展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與件下에. 그렇다면 格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代案을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公報官室에서 答辯할 수 있는 質疑 要旨를 찾아서 質疑를 해 주시는 方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韓植 委員; 안녕하십니까? 銅雀 第5選舉區 出身 鄭韓植 委員입니다.

여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좋은 質疑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重複되지 않은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報告內容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뉴스 配付

處에 輿論指導層에 몇 萬部를 配布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輿論指導層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고, 本委員의 느낌으로서는 輿論指導層이 아니라 輿論撫摩層으로 그런 감이 와닿습니다.

두 번째,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바항에 보시면 國民弘報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國民弘報인지 市民弘報인지 확실히 內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뉴스 新聞에 義會 關聯 報道紙面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在鄉軍人會서울市支會 支援金이 前半期에는 支給한 內容이 없습니다. 下半期도 역시 支給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6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劉大運 先輩委員님께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自由總聯盟 補助金 支給이 80%가 前半期에 支給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유엔韓國參戰國協會 支援金도 上半期에 全額이 支給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內容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보라매公園에 있는 市有建物を 無償으로 賃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附帶費用, 예컨대 清掃費, 上水道料 이런 것도 모두 無償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主要業務 報告內容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바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市政弘報 次元에 많은 돈을 쏟고 있으되 實質적으로 필요한 市民 啓蒙, 市民 啓導에는 豫算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때문에 市民 啓導 또는 市民 啓蒙 차원의 豫算 執行 計劃과 그 實績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委員님 또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말씀해 주세요.

○林靜枝 委員; 民主黨의 林靜枝 委員입니다.

여기 8페이지를 보면 緊急狀況 發生時 效率的 弘報體制 確立 그래서 지난번 三豐事件때 이름을 알 수 없는 部分屍體가 한 군데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報道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屍體를 찾지 못하는 家族의 數와 聯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페이지 11에 地下鐵 電動車 活用 廣告 中 運營에서 92년부터 無料로 利用, 95年 實績이 3件 그랬는데 그 內容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4 바에 國民弘報委員 委囑, 委囑委員이 各界의 社會指導層 人士 18名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어떤 분들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市政의 對市民弘報 및 市民輿論收斂 市에 建議, 이것이 직접적인 方法으로 市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가부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委員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徐在浣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浣 委員; 城東甲에 徐在浣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質問을 해 주셔서 저는 補充質問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補助團體 支援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角度에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補助金を 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團體에서는 公報에 관한 業務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는 전혀 輿論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補助金を 준 團體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補助金を 받고 公報에 대한 어떤 도움으로 公報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어떤 業務를 報告받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公報官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時間을 드려서 整理를 해서 여유를 두고 성실한 答辯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즉석으로 지금 答辯을 듣도록 할까요? 어떤 方法이 좋겠습니까? 公報官님, 時間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答辯하시겠습니까?

○公報官 趙大龍; 委員長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10分間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저희 課長들과 의논을 해서, 委員님들의 質疑에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問題가 몇 個 있습니다. 그래서 10分間만 확인할 時間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答辯 準備를 위하여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19分 會議中止)

(11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公報官께서는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원래 會議에서는 正裝을 하고 會議에 임하는데 우리는 좀 자유스럽게 男子委員님들 더우시면 上衣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會議를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大龍; 公報官이 여러 委員님들이 指摘해 주신 그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答辯에 앞서 委員님들이 정말로 좋은 意見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 公報業務 發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鐘化 委員님, 또 李載震 委員님, 또 劉大運 委員님, 또 徐在浣 委員님께서 저희 公報官室에서 支援하고 있는 韓國自由總聯盟서울市支會, 在鄉軍人會, 또 유엔韓國參戰國協會 補助金 支給問題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補助金 支給에 대해서 韓國自由總聯盟서울市支會에 대해서는 上半期 中에 4,000餘 萬원을 支給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6·25 등을 통해서 上半期에 집중적으로 安保教育이라든가, 관련 行事費가, 上半期에 行事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上半期 中에 4,000餘 萬원이 執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三團體, 우리 公報官室에서 補助金を 支給하고 있는 이 3個 團體에 대해서 補助金を 계속 支給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質問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問題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豫算에도 계속 支給할 必要性이 있는가, 委員님들께서 指摘하신 점을 勘案해서 저희 豫算編成 過程에서 內部에서 한 번 意見調律도 하고, 또 委員님들하고 豫算編成 過程에서 한 번 그 問題를 충분히 討論하고 委員님들의 高見

을 反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林鐘化 委員님, 또 梁東錡 委員님께서 저희가 發刊하고 있는 서울시청뉴스의 內容 向上問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公報官으로 赴任한 지 1個月 밖에 안 됐지만 그 問題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시청뉴스의 性格을 社內報的, 企業에서 發刊하고 있는 社內報的 性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市民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社會報的 性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社內報로 돌리고 市民을 위한 新聞을 獨自的으로 우리 서울市廳의 機關紙 形式으로 發刊을 할 것이냐 그 問題를 지금 저희가 아주 精密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民들이 다른 言論보다도 서울시청뉴스를 통해서 서울市가 言論에서 잘 취급이 안되는 分野를 좀더 세밀하고 아주 차분하게 弘報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勘案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청뉴스의 質을 向上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梁東錡 委員님께서 市議會 活動事項이 잘 弘報가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뉴스가 8面을 發行하고 있습니다. 8面, A4 규격으로 發行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개 8面 中에서 議政消息에 1面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議會活動에 대한 比重問題, 그것도 한 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8面 中에서 1面 정도가 平均적으로 議會活動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問題도 委員님들하고 한 번 相議를 해서

더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載震 委員님께서 일단 業務報告가 口號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소위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정 말 言行이 일치하는 그런 서울시 弘報業務를 遂行을 해서 정 말로 市民들에게 서울시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하고 저희 課長, 係長, 또 全職員이 열심히 努力을 하겠습니다.

特定新聞 購讀問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劉大運 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自治區에서 自治區 豫算으로 購讀하고 있습니다. 한 區當 2億원에서 3億원 정도 1年에 購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民選 區廳長 就任 이후에 各 自治區別로 그 問題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統制하거나 하는 問題가 아니라 自治區에서 그 問題는 지금 各 區別로 個別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自治區 區廳長이, 또 自治區 議會하고 해서 그 問題는 解決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李載震 委員님께서 難視聽地域 解決問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難視聽地域에 대해서 정확한 現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님께서 指摘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區別로 難視聽地域을 파악을 해서 中央에 公報處, 또 KBS하고 協議해서 市民들이 그러한 TV 放送을 잘 볼 수 있도록 難視聽地域이 解消되도록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協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載震 委員님께서도 市長動靜이 잘 안 나온다, 서울시청뉴스에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市長님이 民選으로 當選

되셔서 市長님의 眞面目, 진솔하시고 한 그 面貌를 市民들에게 정확히 저희가 作爲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市長님의 활동모습을 弘報하기 위해서 弘報擔當官을 設置를 했습니다.

그래서 李載震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市長님의 活動에 대한 弘報도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님께서 또 地下鐵, 大衆交通 利用에 대한 弘報를 活性化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報告 말씀에도 드렸지만 저희가 電動車에 있는 廣告板이나 와이드컬러, 그 廣告板 活用을, 또 內容의 水準도 조금 더 向上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그때그때 市民들에게 呼訴할 수 있는 그런 文案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發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劉大運 委員님께서 먼저 基礎 自治團體, 自治區의 文化公報室에 대한 運營이 市の 公報官室하고 官選時代하고 지금 현재 民選時代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公報官室에서 各 區의 文化公報室을, 전체 市政이 마찬가지로 指導하고 監督하는 차원하고 또 協助 차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自治區도 民選 區廳長이 계시고 또 概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民選時代를 맞아서 自治區도 法人格이 있고 또 自律的인 면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指導 監督 차원이 아니라 各 區의 文化公報室에서 弘報하고 싶은 分野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積極적으로 協調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指導 監督 차원이 아니고 서로 協調하는 關係로 變化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綜合發刊室 運營問題, 어떤 特惠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 直接的인 所管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市에서 갑작스러운 印刷 需要가 있으면 그것을 거기하고 單價 契約을 맺어서 全般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內務局하고 財務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綜合發刊室의 運營問題에 대해서는 저희 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의 그러한 指摘이 있었다 하는 것을 關係局에 通報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劉大運 委員님께서 儀典問題, 靑瓦臺 行事나 國務會議에 참여하는 市長님의 位相에 걸맞는 儀典 待遇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가, 儀典問題는 저희 內務局 總務課 所管입니다. 그래서 委員님의 그러한 指摘이 있었다, 民選時代에 알맞는 市長님의 儀典 待遇 그 問題가 舉論이 됐다 하는 말씀을 內務局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市長님이 제대로 儀典 待遇를 받는 것이 되도록 關係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님께서 저희 시청뉴스 配付 對象에 輿論指導層이 실질적으로 輿論撫摩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民選時代를 맞이해서 옛날 權威主義 時代에 強制的으로 輿論을 撫摩하는 時代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市가 하고 있는 일들을 社會 輿論指導層에게 시청뉴스, 저희가 發行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드림으로써 市廳에 대한 理解, 市가 하는 일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撫摩하는 時代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알리고 理解하는 그러한 對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國民弘報委員이나 市民弘報委員이나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公報處 計劃에 의해서 國民弘報委員을 委囑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少年韓國日報 社長으로 계시는 김수남氏, 또 檀國大 教授이신 김유혁氏 等 해서 斯界의 國民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東國大 總長 송석구氏 等 해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弘報委員 運營도 조금 더 活性化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市議會 活動을 시청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8面 中에서 1面을 현재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市民 啓導 豫算이 없다 말씀이 계셨는데 市民 啓蒙 차원, 그래서 지금 현재 直營매체는 아까 報告드린 시청뉴스 하고 市政 비디오물을 통해서 市民을 啓導하고 또 啓蒙하는 차원보다 市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所見으로는 이제는 市民이 啓蒙 對象은 아닌 것 같습니다. 市民들이 市民意識도 높아졌고 또 自律的 市民意識이 높아지는 段階이기 때문에 저희가 市民을 啓蒙의 對象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市民들의 理解를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弘報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林靜枝 委員님께서서 三豐事故 때 屍體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 弘報 分野가 좀 脆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날에 放送이 生中繼도 하고 無秩序하고 여러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赴任되기 전의 일이었지만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굉장히 救助作業 자체에 방해를 주는 그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三豊事故 全般 復舊作業이라든가 事故原因이라든가 白書を 이용하고 있습니다. 各 復舊活動이나 또 弘報活動 또 事後收拾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事後處理 過程中서 했던 일들을 반추해 봄으로써 앞으로 類似한 事件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더 收拾 體系를 잘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白書を 發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弘報 측면에 있어서도 活動을 한번 反省해 보고 어떻게 하면 復舊作業 關聯 無秩序한 取材 競爭도 막고 秩序 있게 하고 國民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점을 잘 調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 電動車的 廣告問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報告書에도 있었지만 쓰레기 再活用, 아무래도 현재 서울市가 當面하고 있는 중요한 問題 중에 交通問題 다음으로 쓰레기處理 問題인데요, 그래서 쓰레기 再活用 캠페인하고 저희가 서울市에서 運營하고 있는 民願案内 電話番號가 있습니다. 120番 그것하고 쓰레기從量制에 대해서 저희가今年度에 집중적으로 地下鐵 電動車を 利用한 廣告를 實施했습니다.

國民弘報委員 名單은 委員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在浣 委員님께서 補助團體에 支援함으로써 公報 業務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團體에 支援을 통해서 公報業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韓國自由總聯盟이나 유엔參戰國協會, 在鄉軍人會, 본연의 業務를 통해서 우리 國民들에게 反共意識 高揚이라든가, 또 汝矣島 安保展示場 運營을 통해서 6·25때 사용하던 비행기라든가 그런 展示物들을 통해서 市民들에게 反共意識 또 自由民主主義의 중요성 그런 점에 대해서 間接적으로 弘報하는 效果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委員님들의 좋은 충고 말씀에 대하여 不足한 答辯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의 좋은 高見을 저희가 앞으로 公報官室 運營에 적극 參考해서 政策에 反映토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補充質疑 하실 委員님 계시면 계속해서 補充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東 委員; 東大門區의 金乙東 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 質問 잘 듣고 또 우리 公報官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될 事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質問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하시는 大韓民國 在鄉軍人會에 대한 것, 또 韓國自由總聯盟에 대한 것을 우리 委員님들이 굉장히 拒否反應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護國精神이라든가 安保意識을 하는데는 그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機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權力에 이용되고 앞잡이 役割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한 內容과 어떤 反對되는 일을 했다고 저희들 전부 다 거의 認識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무작정 反對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辨明할 수 있는 機會, 또 앞으로 이 분들의 活動事項을 정말 진정하게 反共意識이나 安保意識이나 우리 護國精神 涵養에 쓰는 方向으로 가게끔 啓導하는 것도 저희들 市民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豫算을 削減하고 무조건 없애자 하는 그런 反論보다

는 한번쯤 辨明의 機會를 주고 좋은 方向으로 啓導를 하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든가 하는 方案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公報官님, 그 問題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答辯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公報官 趙大龍; 公報官이 金乙東 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3個 團體에 대해서 過去의 活動實績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判斷을 해 보고 또 앞으로의 계속 支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金乙東 委員님 말씀도 계셨지만 贊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個 團體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豫算審議 過程에서 혹시 機會가 되면 委員會에 그 團體에서도 代表者가 出席을 해서 報告드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會에서 要請이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3個 團體에 이런 것을 傳達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林靜枝 委員, 말씀하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아까 마지막 質疑를 한 것에 대한 對答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에 "市政의 對市民弘報 및 市民輿論收斂 市에 建議"에서 新聞이나 座談會 또 講演 이런 것이 아닌 直接的인 方法으로 建議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없으면 또 앞으로 어떤 計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趙大龍;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國民弘報委員들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대략 運營하는 것은 이 분들로 各種 敎育하고 講演會 活動을 하시게 하고 저희가 가끔 市長님하고의 懇談會를 통해서 그 분들이 죽 生活을 하시면서 市民들의 不便事項이라든가 자연스럽게 市長님께 建議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機會를 통해서 市長께 직접 그 분들이 斯界에 經綸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좋은 말씀들을 市長님께 建議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모임이 없었는데 앞으로 弘報委員님들하고 市長님하고의 어떤 懇談會 그런 場을 마련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그런 機會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市長님께 바라는 市民의 소리를 그 분들을 통해서 傳達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또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마치고 公報官室 業務報告의 件을 終結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續)

○委員長 安順德; 坐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2. 文化觀光局業務報告의 件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2項 文化觀光局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어제 서울시 人事에 따라서 文化觀光局長으로 發令받은 金禹奭입니다.

존경하는 安順德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먼저 光復 50周年을 맞이하고 새로운 大躍進을 다짐하는 歷史적으로 그 意味가 매우 깊은 時期에 市民의 뜻에 따라서 選出되신 文化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第2期 文化敎育委員會 出帆으로 서울은 600年 歷史都市로서 그 어느 時代보다도 人間中心의 都市, 文化가 살아 숨쉬는 世界속의 國際都市로 發展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 文化觀光局에서는 600年 故都 서울이 21世紀 아시아 太平洋의 主役都市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文化力量을 결집시키고, 先烈들의 民族精神과 文化遺産을 되새기고 다듬어서 由緒 깊은 文化觀光都市, 그리고 世界가 交流, 協力하는 國際 中心都市로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委員님들의 指導에 힘입어서 함께 邁進할 것을 다짐하면서 文化觀光局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文化課長 李老根, 文化財課長 柳時源, 觀光課長 白亨奐, 國際交流課長 李星)

이어서 油印物에 따라서 저희 文化觀光局에서 推進하고 있는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저희 文化觀光局所管 95年度 主要事業의 推進內容에 대해서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文化觀光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英順 委員; 九路區의 李英順입니다.

장장 1時間 동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쉬는 時間 없이 곧바로 質問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時間 文化觀光局의 報告를 들으니까 地方自治時代를 열어가는 서울의 眞面目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다양한 地域의 特徵을 살려서 文化의 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는 이런 것들을 造成하고자 하는데 仁寺洞이 文化의 거리를 造成하는 한 洞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昨年 10월에 제가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昨年 10월이 文化의 달로 選定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仁寺洞에서 다양한 그런 行事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傳統 展示品들을 진열을 해 가지고 거리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음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에 外國인들이 들어오면 늘상 매일 같이 우리들의 傳統文化를 볼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없었다라고 보았는데 仁寺洞의 모습을 보면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특

정 있는 10월에 文化的 달을 選定해 가지고 그런 行事を 하는 것보다 매주 한 두 번 정도 그런 行事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나 外國인들이 오면 우리들의 傳統文化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行事に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어떤지 한 번 提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狎鷗亭洞에도 패션의 거리, 가족의 거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江南이나 瑞草에는 모든 우리나라의 좋은 施設物들을 다 誘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住居環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文化環境이라든가 가장 좋은 惠澤을 받고 있는 地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地方自治時代에 걸맞는 各 區의 特徵을 살려내는 이런 文化를 造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狎鷗亭洞에 패션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再考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外國에도 보면 패션의 都市를 設定하는 것이 生産하고 所費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패션의 거리는 바로 九老區에 設置가 되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九老區는 有名한 옷들을 많이 生産하는 곳입니다. 진도모피나 잔피엘, 까뜨리네뜨, 外國인들이 가장 즐겨입는 그런 많은 옷들을 生産하는 곳인데 바로 그 地域에 패션의 거리를 만들어서 外國 觀光客들을 誘致하고, 또 그 地域의 住民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地方自治時代와 걸맞는 그런 文化的 造成하고 맞물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꼭 再考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美國의 라코스테나 英國의 버버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生産과 觀光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造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朝餐祈禱會, 新年祈願大法會를 支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文化하고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慣行은 大統領의 執權하고 관련된 이런 行事였기 때문에 오히려 大統領의 辦公費로 支援을 할 거리이지 서울시 文化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林鐘化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林鐘化 委員; 무더운 날씨에 文化觀光局長께서 소상히 業務報告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페이지에 보면 圖書館 建立 支援 해 가지고 4個所, 62億원이라는 豫算이 있는데 우리 나라 敎育史上 보면 지금 서울에 中·高等學生이라든지 모든 學校施設이 不足해 가지고, 圖書館이 不足한 狀態에 있는데 다른 豫算은 執行이 됐는데 이 圖書館 建立 支援에 대해서는 지금 4個所 해 가지고 62億원이 있는데 執行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떤 用途로 執行이 되고 있으며, 또 이 圖書館을 어떤 사람이 하고자 했을 때 어떤 方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文化藝術振興基金이 118億 7,900萬원이 있다는데 그 資金은 서울시 文化觀光局에서 管理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文化藝術振興 무슨 團體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預金이 있다면 어느 銀行에 預置가 됐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乙東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金乙東 委員; 東大門에 金乙東 委員입니다.

저희가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 文化觀光局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傳統文化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꼭 必要할 때만
많이 써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文化를 지키는데 굉장히 인색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갑자기 傳統文化 傳統文化 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느낍니
다.

그런데 이것이 잡다하게 조그마한 公演場所라든가 잡다하게
조그마한 일은 있는데 우리의 自矜心を 높일 만큼 大型化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日本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 가면 다까
라스카다 그러면 우리가 觀光을 갈 때 象徴적으로 아, 여기는
꼭 가야지 할만큼 活性化가 되어 있습니다. 日本民族의 自矜心
을 위해서도 굉장히 國庫나 이런 데에서 補助를 해서 活性化
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活性化를 시키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觀光코스의,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
게 活性化를 시켜서 우리 觀光事業하고, 우리 民族 傳統文化
를 繼承 發展시키는 데도 일익을 擔當하고, 또 收入을 올리는
데도 일익을 擔當하는 양립을 쓰는 큰 計劃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저희는 傳統文化 傳統文化 하면서 서울歌舞團이
라든가 舞踊團 이런 것이 다 많습시다만 서울시立國劇團이

없습니다. 그래서 國樂에 관한, 國劇團에 대한 問題, 우리나라 傳統文化에 대한 것을, 앞으로 計劃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께서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林靜枝 委員, 말씀해 주세요.

○林靜枝 委員; 民主黨의 林靜枝 委員입니다.

2페이지에 風納土城이라든가 이런 復元되는 文化財 地域에 방문할 수 있는지요. 踏査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觀光事業은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되는지, 또 收益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다른 都市에 參加했는데 그 參加 記錄을 보고 싶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都市 發展에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살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徐在浣 委員; 城東甲의 徐在浣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區 1館 해서 圖書館을 設立하는 것이 計劃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는 지금 學生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圖書館 建立은 우선 95年度 3個 圖書館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年次事業으로서 60億 원을 지금 豫算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年度에 7個 圖書館을 推進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來年 豫算에 좀 더 많이 確保를 해서 좀 더 빨리 早期에 完成할 수 있도록

參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孫馥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風納土城 復元事業이 完了됐다고 했는데 今年度 事業 중에 서요, 지난번에 未補償部分 請願 낸 사항을 政府에다 建議文 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推進 過程을 좀 報告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에 質疑하실 委員님, 李載震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雲峴宮 도보로, 그 쪽을 觀光路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얼마만큼 修理 補修가 進行돼서 언제 그것이 進行할 수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年末 이 되면 除夜의 종과, 또한 3·1節, 光復節 行事に 종소리를 울리는데 今年 豫算에도 아마 除夜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約 8,000餘 萬원이라는 豫算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거대한 金額을 꼭 소모해 가면서 그 行事を 해야 할 것인지 그 問題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今年에는 光復 50周年 記念事業을 推進하면서 길놀이 및 모든 行事に 推進한 附帶經費 및 總豫算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問題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50周年이 아닌 때에도 이런 豫算을 계속 들여서 이 行事を 進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漢江을 서울市民에게 사랑받는 놀이공간으로 提供한다는 그러한 名稱 아래 2億 4,000萬원의 豫算을 소모한다고 했

는데 여기에 어떤 方法으로 市民의 놀이文化 空間을, 그날 하루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豫算이 쓰이면 長期的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問題에 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圖書館에 대해서 이 圖書館의 豫算이 한번 確定되면 그래도 우리 委員들이 確定한 것이기 때문에 그 確定된 豫算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마음대로 임의로 중간에 누구 손에서 어떻게 해서 變更되는 것인지 變更되는 내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또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根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金亨根 委員; 廣津區 金亨根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質問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書에서 보니까 9페이지에 文化關聯現況 중에서 公演施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質問하겠습니다.

小公演場을 보니까 46個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울에 小公演場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십개, 수백개 이상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公演場 중에서 許可받은 公演場은 46個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公演場에 대한 許可를 서울市에서 現實化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비근한 예로 어느 社會團體에서 公演場을 하나 어렵사리 만들어서 區廳에다 許可 申請을 했더니 그 節次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節次를 좀더 簡素化해서 원하는 團體들이 公演場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安全施設만

되어 있으면 公演場으로 許可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營利인지 非營利인지 區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目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許可해 주는 條件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합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節次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許可를 받아내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한 結果로 지금 小公演場이 46個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不法으로 運營되는 實態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市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地域文化院에 대해서 活性化하는 方案을 昨 業務報告에 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文化藝術界 人士 多數 參與를 誘導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個 院에 대해서 1,500萬원 支援하던 것을 6,000萬원 支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 國費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地域文化院하고 현재 推進中인 圖書館을 갖다가 단순히 책만 보는 圖書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綜合的인 教育文化센터의 役割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圖書館에 文化院의 機能까지를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별개로 運營할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지로 地域文化院이 地域에서 推進되는 것을 보면 文化藝術界 人士 多數 參與를 誘導하는 것이 아니고 地域의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일부 政治家의 政治的인 立地를 強化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文化院을 推進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國費 支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정 그 사람들이 地域에 어떤 貢獻을 하면서 생색을 내려면 그것은 純粹한 民間主導로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文化院 만드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國費 支援을 함으로써 그리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는, 결국 文化界 人士가 아닌 政治指向的인 人士들이 多數 參與하는 그런 文化院은 만들어져도 國民들의 아니면, 住民들의 參與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地域文化院이 설사 國家施策으로, 아니면 國家의 어떤 對民政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地方自治時代に 걸맞게, 그런 것들이 地方自治時代に 안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拒否를 하고, 또 市로서는 施行하지 않는 편이 나올 것 같은데 1,500萬원에 6,000萬원씩 400%나 引上해서 支援하는 그 目的은 결국은 國家政策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精確한 所信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民間資本에 의한 個人的인 文化院 設立과 公共機關으로서의 圖書館 내지는 綜合文化院과는 엄격히 區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立場을 表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質問하겠는데요. 지금 道峰區에 道峰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道峰山을 國立公園으로 해서 入場料

를 받는데 아침에 물을 뜨러 간다거나 산책을 가는 사람들에
테도 入場料를 받는다고 그래서 是非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그 基準이 애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市內에 있는 國立公園이 몇 個나 되는
지, 또는 지금 간단히 한 예로 道峰區 放鶴洞에 있는 그것은
國立公園도 아니고 보통 山인데 거기에서도 處所를 지어놓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住民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基準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간단하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
오.

漁潤慶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漁潤慶 委員; 江東의 漁潤慶 委員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歷史를 素材로 한 傳統樣式의 復元 活性
化"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이 漢陽에서
우리 祖上들이 살아온 지가 587年 되는 아주 토박이 중의 토
박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자랐던 어려서 봤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은 거의 사라져 없어진 안타까운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자면 歷史를 소재로 한 한 傳統樣式이 復元 活性化하는데
선농제나 선잠제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옛날에 있던 것들이
고, 이들에 못지 않은 아주 귀중한 한 地域의 文化財的 價値
가 충분히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즈음은 서울에 全國에
서 모여든 各道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 傳統的
으로 내려오던 固有한 어떤 文化는 한 고장에서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려서 보면 이 松坡 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松坡는 무엇으로 有名했느냐 하면 아주 씨름으로 有名했어요. 그래서 松坡에 가서는 힘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돼 왔습니다.

또한 요새 岩寺洞으로 불리는 地城, 거기를 저희는 어려서 그저 바닷절이라고 불러왔는데 韓日合邦되면서 왜놈들이 岩寺洞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불러지기 시작을 했던 데입니다.

여기는 有名하게 옛날부터 소리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닷절에 가서는 소리자랑마라 하는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역시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옛날부터의 民俗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好喪 雙喪 輿 같은 것은 아마 서울에서도 代表的인 民俗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開發이 되고, 維持가 되고, 좀더 發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市로서는 그런 計劃이나 豫算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松坡의 씨름 얘기를 했는데 본래 이 서울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松坡의 씨름, 그러니까 서울의 씨름은 요즈음에 壯士씨름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새 하는 것은 원씨름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서울의 씨름은 오른씨름이었어요, 살바를 오른쪽에 하는. 이것이 원래 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하남 위례성, 그러니까 百濟 初期부터 내려오던 百濟文化圈의 한 類型이었습니다. 그 百濟文化圈 즉, 忠淸道, 全羅道로 내려가면서는 이것이 그대로 전해져 왔는데 新羅文化圈, 慶尙道에서는 정반대로 요새 유행하는 이 씨름이 됐거든요.

원래 이 서울에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樣式, 이것은 固有한 것으로 살려 나갈 어떤 그런 計劃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慶尙道 文化에 의해서 옛날

부터 내려오던 이 서울의 씨름은 아주 없어졌어요. 증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 地域에 대한 傳統樣式, 歷史를 소재로 한 地域의 傳統樣式을 復元 活性化한다면 이것도 하나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3페이지에 보면 移動圖書館 運營이 나오고 있는데 車輛 26臺에 圖書가 51萬 1,000卷, 과연 이 移動圖書館 車輛이 굴러다니면 利用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과연 그 實績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年間 얼마의 豫算이 必要하고,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所得이 있는 알찬 移動圖書館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規模, 어떠한 豫算이 어떻게 필요하겠나, 책은 얼마 가량이 더 필요하겠나 따르든지, 이 移動圖書館이 巡廻하는 코스의 配定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文化賞制度 擴大 發展 推進, 위에서 96年 中 서울特別市文化賞條例를 改正 推進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文化賞이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實施가 돼 왔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計劃인가. 또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制度를 요즈음처럼 孝悌思想이라고 할까, 우리 道德이 땅에 떨어진 때에 아주 活用을 잘하면 우리 市民文化 내지는 市民 情緒教育에 대단히 좋은 制度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實績과, 앞으로 어떻게 運營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活性化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없나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21페이지에 風納土城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風納土城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거의 그 土城의 길이가 約 3km가 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늘 보아왔던 그런 것인데 6·25 戰爭 나면서 그 大部分이 거의 個人財産化 됐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堤防에 집을 하꼬방 짓듯이 이렇게 해서 살다가 거의 個人所有로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오래 전부터 보아 왔었는데 상당히 다시 復元하는데 있어서는 큰 投資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風納土城의 그 사실을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얼마나 옛날에 가깝게 復元을 하는 計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2페이지에 北漢山城 復元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北漢山城을 復元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셔야 하고, 반면에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이 廣津區 뒤에. 그 아차산성에 올라가 보면, 그것은 龍馬山이라고 하는 廣津區에 속해 있는 山인데 거기서부터 워커힐 뒤로 옛날에 유명한 평강공주, 온달장군의 얘기가 거기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 옛날 실제로 싸웠던 전쟁터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山에 올라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천 수백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山城이 거의 허물어져서 돌무더기, 部分的으로 그런 돌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요 몇 年前에 區廳長이 그 洞을 巡視하면서 區政報告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建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市에 建議해서 꼭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그 아차산성의 復元이라고 하는 것은 歷史的 意味도 대단하러니와 지금 현재 破損돼 가고 있는 아주 황폐한 옛날 古城의 모습을 보면, 모두들 아마 대개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상 가보면 우리의 意識이 이렇게 이쪽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 有名했던 山城이 이처럼 황폐화됐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 部分, 今年 豫算에 없으면 다음 해라도 아차 山성 復元에 대한 것 留意해 두셨다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27페이지 觀光業所에 요 맨 아래 보면 세모라고 하는 뭐가 나옵니다. 이 세모는 漢江에 배를 띄우고 장사를 하는 아마 業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規模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손님을 많이 받으면서 과연 漢江을 깨끗이 잘 보전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衛生的으로 아마 所管은 다릅니다만 역시 여기 올라 왔으니까 자세한 것, 그러니까 한강물을 많이 汚染시키는 業所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세모를 漢江에서 營業을 하도록 許可를 해 주고, 우리 市로 收入이 된다고 할까요, 세모로부터 徵收하는 税金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커다란 危害要因을 안고 이런 業所들에게 漢江에 배를 띄우고 장사하도록 許可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內容도 궁금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또 委員님 質疑 안 계십니까? 있으세요?

劉大運 委員님, 말씀하세요.

○劉大運 委員;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文化觀光局 豫算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적구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文化事業을 하면서 어떤 地域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特定地域에 文化空間을 많이 세우고 있다라는

감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95年度에 事業을 하기 위해서 豫算編成 당시에, 지금 96年度 豫算編成 作業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만 우선 答辯해 봐요. 맞지요? 8月부터 시작하지요?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네.

○劉大運 委員; 95年度에 事業을 하기 위해서 豫算을 要求했다가 豫算을 받지 못해서 事業을 하고 싶었는데,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事業들이 있다면 答辯을 해 주시고, 96年度에는 現行 서울市 전체 豫算對比 文化觀光局에 配定받아야만 되는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推定되는 事業과 豫算範圍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時間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중첩되는 것은 조금 諒解해 주시고, 간단하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13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孫馥; 座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은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되 書面으로 答辯이 가능한 것은 書面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이 委員님 質疑에 대해

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英順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內容입니다. 仁寺洞 祝祭와 같은 것은 어떤 特定한 달에만 할 것이 아니고 每週 2日 정도 行事를 하는 것이 좋겠다 質問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4月하고 10月에는 祝祭를 해서 各種 이벤트行事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제 그 地域에서 어떤 展示會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平時에도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 行事를 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觀光客들에게 볼거리를 提供한다는 면에서는 效果가 떨어지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每週 하는 경우에 交通 疏通 問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交通 遮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市内 交通 疏通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再檢討해서 추후에 李委員님께 結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狎鷗亭洞 패션거리에 대한 再考 用意, 그리고 生産과 所費가 같이 近接되어 있는 地域인 九路區에 패션거리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지금 어떤 패션의 거리라든지 文化거리는 제대로 法에 의해서 強制的으로 指定하는 것이 아니고 自然發生的으로 기왕에 그 地域, 그 거리에 패션가가 造成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 區나 저희 市에서 그 商人 聯合會라든지 이런 民間 商人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希望해 왔을 때 저희들이 步道 整備라든지 街路環境 整備라든지 이런 것들을 間接적으로 支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特化돼 있는 狀態가 패션의 거리로서 적절한 與件이라면 저희들이 억지로 그것을 패션거리로 하지 말아라 한다는 것도 問題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區廳의 自律的인 判斷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九老區에 設置하는 問題는 저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問題는 이런 거리를 設置한다는 자체가 生産 業體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生産하는 製品을 그 隣近에서 展示하고 販賣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肯定的으로 생각을 하고 必要性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事業은 조기에 實現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 時期가 늦어질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判斷을 해 봐야 될 問題라고 하더라도 일단 生産施設이 있는 隣近에 그런 展示, 販賣施設을 갖추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效果가 있다고 저희들은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朝餐祈禱會라든지 大法會 支援은 저희들 地方自治團體에서 宗務行政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懇談會를 통한 어떤 宗教團體와의 意思 交換, 對話의 廣場으로 저희들은 그 概念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政治 行爲와 관련된 만남의 行事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問題는 앞으로 좀 더 深度 있는 檢討가 필요한 사항으로 判斷이 됩니다.

그리고 宗教라는 것은 佛敎이든, 改新敎이든, 天主教이든간에 그 社會의 道德 倫理面에서 市民情緒 純化에도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間接的으로는 저희 宗務行政과 관련해서 地方自治團體 業務와는 전혀 별개사항이라고는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실제 地域 現場에서는 宗教團體와 또 區廳 自治區 洞事務所間에도 평소에 상당히 業務가 서로 協調 相扶相助하는 그런 現場에서의 일도 있다 하는 점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林鐘化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區立 圖書館 支援豫算

이 執行 안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支援基準이 敷地 確保는 自治區에서 敷地를 물색해서 確保를 하고 그렇게 해서 設計가 完了되면 저희들이 豫算을 支援하게 되는데, 지금 城東과 中浪은 敷地를 물색중에 있고 冠岳은 지금 設計 중에 있기 때문에 冠岳은 곧 豫算이 支援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됐습니다. 城東과 中浪 경우에도 敷地가 물색이 돼서 設計가 完了되면 바로 豫算이 支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民間人이 이런 圖書館을 設立하거나 經營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자기가 設置를 해서 서울市에 登錄 節次만 밟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區에서 區立 圖書館을 짓고 나서 運營을 民間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自治區에서 어떤 審議委員會라든지 이런 것을 構成해서 아주 地域文化福祉事業의 寄與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民間人이나 團體에게 委託 運營을 맡기는 方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文化藝術振興基金은 현재 저희 文化課에서 管理를 하고 있는데 국민투자신탁에 預置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利率이 높은 預金 種類를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豫算 增殖이 될 수 있도록 管理를 하고 있고 이 基金의 사용은 저희들이 新聞에 公告를 내서 正식으로 支援을 希望하는 團體로부터 申請을 받아서 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乙東 委員님께서 質疑 계셨습니다.

지금 各種 公演場이 있다 하더라도 規模가 작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狀況이기 때문에 크게 活性化시켜서 觀光과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 그리고 收入 效果面을 동시에 병행해서 提高시킬 수 있는 計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

단 그런指摘 말씀 상당히 좋고 저희들도 그런 必要性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年次的으로 그런 것을 擴大해 나가는데 우선 아까 報告드린 대로 南山에 한옥천을 造成하는 거기에 大單位 常設公演場을 設置할 計劃이 있고 거기에서 工藝品을 製作 展示하는 機能도 함께 하고 雲岷宮 復元 事業들, 質疑하신 內容에 꼭 부합되는 事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基礎로 해서 그런 方向下에서 앞으로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國劇團이 없다는 말씀이 계시고 그 計劃의 有無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文化觀光局長 發令받기 전에 新聞에서 演劇을 하는 劇團도 設立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紙面을 통해서 손수 演劇人께서 寄稿한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問題 등을 綜合的으로 총괄해서 한 번 檢討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設立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점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文化觀光局長님, 答辯中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諒解를 좀 구한다면 좀더 면밀하고 자세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諒解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答辯을 듣고, 오늘 議事日程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關係로 書面答辯으로 같음을 하는 것이, 同僚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局長께서는 우리 同僚委員들이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좀더 書面으로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孫馥; 그러면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退場하셔도 좋습니다.

3. 世宗文化會館業務報告의件

(15時 45分)

- 委員長代理 孫馥; 議事日程 第3項 世宗文化會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世宗文化會館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世宗文化會館長 趙誠斗; 1995年 8月 16日字 서울市 人事에 따라 世宗文化會館長으로 發令받은 趙誠斗입니다.

존경하는 安順德 委員長님과 委員님, 먼저 地方自治가 實施되는 時期에 市民의 뜻에 따라 選出된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世宗文化會館 業務報告에 앞서서 陪席한 간부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庶務課長 金光秀, 施設管理課長 崔華炯, 舞臺公演擔當官 張基豐)

오늘 처음 出勤했기 때문에 業務現況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報告 中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委員님들께서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一般現況, 上半期 主要實績, 主要業務推進計劃, 長·短期 發展方向 등의 순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저희 世宗文化會館 館長 以下 全 職員들은 文化藝術의 發展을 위해 渾身の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復; 그러면 世宗文化會館 業務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東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乙東 委員; 東大門의 金乙東 委員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을 貸館하는 一般團體에의 資格基準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貸館을 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지, 또한 貸館을 하려면 그 時期가 얼마 전부터 貸館을 申請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世宗文化會館에서 管掌하는 藝術團體 즉, 市立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支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용단이라든가, 가무단이라든가 그런 種類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가지의 種類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演劇舞臺를 중심으로 하는 1,500席 規模의 中講堂을 設置하신다고 했는데, 페이지 12페이지예요. 1,500席 규모라는 것은 演劇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公演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時期가 어느 때까지, 이것이 計劃만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자세한 어떤 細部指針이 내려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說明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바로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趙誠斗; 바로 答辯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또 質疑하실 委員,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貸館을 하는데 있어서 有料貸館과 無料貸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今年 같으면 有料와 無料日數가 정확히 며칠 정도 되는지, 그리고 無料貸館을 할 때는 어느 基準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 또 質疑하실 委員,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에 수년 전에 불이 나 가지고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安全도가 얼마나 되는지, 安全에는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建物 自體에서 나오는 收入, 예를 들면 公演을 한 다든가, 또는 賃貸料는 없는지요? 그래서 그 收入과 支出의 內譯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 金亨根 委員, 말씀해 주세요.

○金亨根 委員; 金亨根 委員입니다.

지금 林委員, 또 徐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에 조금 더 자세하게, 施設面에서 大講堂, 小講堂, 大會議場, 小會議場, 展示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昨年 동안에 연 며칠이 貸館이 됐고, 그 중에 有料와 無料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報告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각각의 收入까지도

자세하게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漁潤慶 委員, 말씀해 주세요.

○漁潤慶 委員; 歲入과 歲出을 보면 아주 대단한 赤字를 보고 있는데 이 赤字를 解消할 수 있는 어떤 劃期的인 腹案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林鐘化 委員, 말씀해 주세요.

○林鐘化 委員; 麻浦4地區 林鐘化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을 보니까 敷地가 6,380坪에 建物이 1萬 6,647坪으로 나와 있고, 人員이 事務職이 210名, 藝術團員이 609名 해 가지고 總 豫算이 159億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會館 運營豫算이 86億원, 藝術團體 運營이 73億원 해서 159億원으로 나와 있고, 歲入을 보니까 11億원인데 賃貸收入에서 4億 4,000萬원, 公演收入이 3億 6,000萬원, 宴會場 收入이 2億 5,000萬원, 雜收入 4,300萬원 해 가지고 財政自立도가 10%에서 13%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약 87%가 서울市 豫算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지금 世宗文化會館이 우리가 봤을 때 市民들에게는 거리가 좀 멀고 좀 中産層이라든지, 또 藝術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利用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市民을 代表하는 世宗文化會館이라면 앞으로 庶民들에게도 活用할 기회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李載震 委員, 말씀하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業務報告書에 보면 今年度에 52%의 豫算이 增加되어서

13%의 自立度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過去에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文化藝術의 殿堂인 世宗文化會館에서 당연히 世界的으로 보더라도 이제 黑字를 낼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고, 黑字를 내서도 아니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4年 동안 좀 그래도 自立度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이라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貸館收入이 35% 增加하고, 公演收入은 128% 增加해서 이러한 現實을 가져온 것도 정말 世宗文化會館 職員들이 열심히 努力한 대가는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고 앞으로 좀더 企劃商品이나 모든 것을 努力해서 自立度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또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世宗文化會館의 레스토랑施設을 다시 改·補修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 지난 번에 새로이 다 改·補修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改·補修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過去에 그 施設이 안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世宗文化會館의 世宗홀의 契約이 滿了되는 期間이 언제이며, 또한 滿了되는 그 期間 內에 契約을 再契約할 때의 計劃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計劃이 확실히 서있어야 앞으로 많은 時日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計劃하고, 그 다음에 靑少年交響樂團의 月 報酬라고 할까, 또한 交通費랄까 주는 額數가 얼마이며,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부

족하다면 좀 더引上해 줄 用意는 없는지 이 問題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趙相勳 委員, 말씀해 주세요.

○趙相勳 委員; 廣津區의 民主黨 趙相勳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이 특히 우리 市立藝術團體를 거의 總括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실은 文化藝術團體들, 또 그것을 總括하고 企劃하는 立場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기존의 타성을 벗어난 새로운 試圖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世宗文化會館에서 市民들의 參與나 藝術文化界 人士의 意見을 구할 수 있는 어떤 組織體가 있는지, 또 없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市民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思考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運營諮問委員이라든가 이런 市民 支援組織을 만들 意思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豫算執行現況 中에 補償金이라는 名目の 豫算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補償金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項目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補償金에 대한 內譯을 說明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世宗文化會館長, 지금 즉시 答辯하실 수 있으니까?

○金乙東 委員; 補充質疑 하나 더 해도 될까요?

○委員長代理 孫馥; 補充質疑 하십시오.

○金乙東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에 補充을 더 하겠습니다.

支援하고 있는 各 團體의 豫算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豫算

이 얼마씩 編成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館長이 오늘 처음으로 赴任하셔서 業務把握이 제대로 다 안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質疑하신 內容은 좀더 소상하게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世宗文化會館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退場하셔도 되겠습니다.

4. 公務員教育院業務報告의件

(16時 13分)

○委員長代理 孫馥; 座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日程 第4項 公務員教育院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公務員教育院長 나오셔서 인사와 業務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公務員教育院長입니다.

尊敬하는 安順德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公務員教育院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業務報告에 앞서 委員님들께서 全國同時選舉 4大 選舉라는 생소하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市民들의 選擇을 받아 第4代 서울特別市 市議員에 當選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敎育院 家族들은 委員님들께 敎育訓練에 관한 크고 작은 일들을 虛心坦懷하게 의논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市의 敎育訓練行政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發展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委員님들께서 저희 敎育院의 敎育訓練業務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指導와 鞭撻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 주시면서 사랑이 담긴 忠告와 協助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敎育院 所屬 모든 公職者들은 더욱 분발하여 委員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敎育訓練 發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鞭撻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今年度 저희 敎育院의 主要業務 推進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報告에 앞서 저희 敎育院 幹部들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敎授部長 金興權, 庶務課長 李一聖, 敎學課長 林東南, 企劃課長 權宗洙, 銓衡室長 朴鎭昌)

이어서 配付해 드린 資料에 따라서 저희 敎育院의 今年度 主要業務 推進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公務員敎育院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말씀해 주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페이지 7에 市政의 世界化 마인드 提高에서 外國語 會話敎育에 영어, 일어만 있는데 독일어, 불어, 중국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科目을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海外研修者가 年 4회에 4,000名인데 이것도 100%나 200% 대폭 擴大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地方自治化 時代를 위해서 市議員들에게 敎育의 기회는 없는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地方自治 定着을 위한 專門敎育 強化해서 서울시 市議員들에게도 이런 敎育의 計劃은 없는지, 機會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또 안 계십니까?

梁東錡 委員, 말씀해 주세요.

○梁東錡 委員; 여기 敎育院의 機構表를 보면 현재 實務陣들만 되어 있는데 講師陣, 敎授陣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 敎育院의 敎授陣들은 어디에서 選拔해서 하는지, 현재 그대로 敎育院에 상주하고 있는지, 그때 그때 어디에서 招聘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林鐘化 委員, 말씀해 주세요.

○林鐘化 委員; 麻浦 林鐘化 委員입니다.

機能에 보니까 市公務員 및 일부 中央部處 6級 이하 公務員 教育訓練이라고 쓰여 있는데 1日 教育人員이 1,392名으로 나와 있고 전체 서울市 公務員이, 여기 표를 보니까 1萬 5,960名이 6級 이하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6級 이하가 1萬 5,960名이고 또 5級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人員하고, 人員 대비해서 9,441名이 지금 教育을 實施해서 59.6%를 教育을 實施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6級 이하만 教育을 實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級 이상 公務員의 教育訓練은 없고 이것은 2,100名에 대해서 精神教育만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5級 이상도 여기 현재 公務員教育院에서 6級 이하를 가르치는 講師분들이 5級 이상도 精神教育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講師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徐在浣 委員, 말씀해 주세요.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各種 公務員試驗이라든지 民間人 資格試驗이 있습니다. 여기에 資格試驗에 따른 試驗 出題委員들은 어떤 方法으로 構成이 되고, 또 어떤 基準을 가지고 構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具體的인 答辯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鄭韓植 委員, 말씀해 주세요.

○鄭韓植 委員; 안녕하세요? 鄭韓植 委員입니다.

報告書 2쪽 機能에서 中央部處 6級 이하 公務員 教育訓練을 實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中央部處 6級 이하 公務員들에

대한 教育訓練에 따르는 費用은 어떻게 處理하고 있으며, 食代라든지 受講料라든지 器具 賃貸料라든지 등등을 徵收를 하는가, 그리고 今年 上半期까지의 實績을 精確하게 數値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公務員教育院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새로 院長이 赴任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精實하고 所望한 答辯을 받기 위해서,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諒解를 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公務員教育院長께서는 同僚委員들이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해당 委員한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委員들한테 다 書面으로 答辯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公務員教育院 院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退場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4分 散會)

○出席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馥 金乙東

金亨根 徐在浣 梁東錡 漁潤慶

劉大運 李善宰 李英順 李載震
林靜枝 林鐘化 趙相勳 許光泰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公報官 趙大龍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世宗文化會館長 趙誠斗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